

『三國遺事』의 興法篇의 趣旨

저자 (Authors)	李基白
출처 (Source)	진단학보 , (89), 2000.6, 1-6 (6 pages) THE CHIN-TAN HAKPO , (89), 2000.6, 1-6 (6 pages)
발행처 (Publisher)	진단학회 The Chin-Tan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77036
APA Style	李基白 (2000). 『三國遺事』의 興法篇의 趣旨. 진단학보, (89), 1-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13 13:3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三國遺事』 興法篇의 趣旨

李 基 白

〈目 次〉

I. 머리말

II. 興法篇의 內容

III. 興法篇 편찬의 趣旨

IV. 合理的 考證의 試圖

V. 맺는말

I. 머리말

『三國遺事』의 9편 중에서, 王曆과 紀異가 一般史話라고 한다면, 興法 이하의 7편은 佛敎史話이다.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돌로 나누어서 보는 데에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불교사화 중에서 興法篇은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셈이다. 흥법편은 한국에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수용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順道肇麗」, 「難陀闍濟」, 「阿道基羅」 및 「原宗興法·獸鬪滅身」의 네 조목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삼국유사』에서 불교사화를 시작하는 첫 번째로 흥법편을 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된다.

그러나 간단히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一然이 흥법편을 엮게 된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흥법편에는 불교의 수용과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三國 후기 내지 말기의 불교에 관한 이야기, 즉 「法王禁殺」과 「寶藏奉老·普德移庵」의 두 조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좀더 신중히 넓은 관점에서 흥법편의 내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필자가 처음 佛敎思想史를 연구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가장 매력을 느끼면서 읽은 대목이 바로 이 흥법편이었다. 이 흥법편에 대한 검토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필자가 학술논문으로서 처음 활자화한 「三國時代 佛敎 傳來와 그 社會的 性格」이었다.¹⁾ 그러므로 흥법편은 필자로서는 잊을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당시에는 불교 수용을 말하여 주는 사료로서 이를

1) 이 논문은 처음 『歷史學報』 제6집(1954)에 발표되었는데, 뒤에 『新羅思想史研究』(一潮閣, 1986)에 수록하면서 내용에 알맞게 「三國時代 佛敎 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로 제목을 고치었다.

다루는데 그치었고, 따라서 흥법편 전체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넘어갔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이 흥법편을 하나의 저술로서 그 성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一然이 흥법편을 편찬한 본 뜻을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는 것이다.

II. 興法篇의 內容

興法篇이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佛敎 受容에 관한 사화와 그 밖의 삼국시대 후기 내지 말기의 불교 관계 史話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이미 머리말에서 언급해둔 바가 있다. 우선 첫째의 佛敎受容史에 관한 부분을 보면, 고구려의 불교 수용을 서술한 「順道肇麗」(順道가 고구려에 불교를 처음 시작하다) 조와, 백제의 그것을 서술한 「難陀闡濟」(摩羅難陀가 백제에 불교를 열다) 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지극히 단순하게 되어 있다. 두 조항 모두 『삼국사기』의 高句麗本紀와 百濟本紀에 있는 불교 수용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들 두 조항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삼국유사』에서 『삼국사기』와는 다른 내용의 기사를 기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삼국에 불교가 수용되는 과정을 적어놓아야 한다는 생각, 그러므로 해서 한국에 불교가 처음 수용되는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서술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 두 조항을 『삼국사기』의 기록 그대로나마 적어둘 필요를 느끼게 했다고 생각한다.

「阿道基羅」(阿道가 신라 불교의 터를 닦다) 조와 「原宗興法·獸鬪滅身」(原宗이 佛法을 일으키고 獸鬪이 자기 몸을 희생하다) 조는 신라에 불교가 전래·수용되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아도기라」조에서는 먼저 『삼국사기』의 墨胡子和 阿道에 관한 기사를 소개하고,²⁾ 이어 「阿道本碑」를 인용하여 아도에 관한 또 하나의 다른 전승을 소개하고 있다. 이 「아도본비」의 내용은 『海東高僧傳』에 실려 있는 朴寅亮의 『殊異傳』의 기사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는 『梁高僧傳』의 神異篇에 있는 曇始傳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당시전은 『해동고승전』에서는 독립되어 있는 것이다. 一然이 당시전을 독립시키지 않은 이유는, 그가 아도·묵호자·마라난타와 연대와 사적이 유사하여, 이 3인 중의 한 사람이 당시와 동일한 인물일 것이라고 믿은 때문이었다.³⁾ 이로써 보면 一然은 아도의 행적으로서는 『삼국사기』와 「아도본비」의 기록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연은 『해동고승전』에 인용되어 있는 「古記」의 기록을 무시하고 일체 언급하지

2) 이 기사는 『삼국사기』 4 법흥왕 15년 조에 실려 있는데, 원래는 金大問의 『鷄林雜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다.

3) 曇始傳을 소개한 뒤에 一然은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다음과 같다. “曇始가 이미 괴이하여 헤아릴 수 없는 인물인데다, 阿道·墨胡·難陀와 연대나 사적이 서로 같으니, 아마 3인 중의 한 사람이 필시 그의 이름을 (曇始로) 바꾼 것이 아닌가 한다.”

않고 있다. 그 「고기」 속에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도 이전에 왔다고 하는 正方과 滅垢庇의 기록이 나오며,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삼국유사』에서 이를 전적으로 무시해 버린 것은 이상한 일이다. 아마도 그 신빙성을 의심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그렇더라도 『삼국유사』는 각기 다른 異說을 존중하고, 이에 자신의 고증을 붙이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역시 이상하게 여겨진다. 어쩌면 一然이 『해동고승전』을 그리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은 데에도 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

어떻든 신라인들은 阿道를 法興王(原宗)·獸觸⁴⁾(異次頓)과 더불어 三聖으로 생각하고 있었던만큼, 신라 불교수용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믿은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 불교가 국가에 의하여 공인된 것은 法興王에 의해서이며, 異次頓의 순교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原宗興法·獸觸滅身」 조가 필요했던 것이다. 여기에도 『삼국사기』가 인용되어 있으나 극히 간단하고, 주로 憲德王 9년(元和 12년, 817)에 南潤寺僧 一念이 지은 「觸香墳禮佛結社文」에 의지하여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도 간간히 「鄉傳」을 협주로 삼입하고 있으며, 그 뒤의 일들도 약간 보충하고 있다. 『해동고승전』이 國史와 옛날 여러 傳을 살피어 적당히 서술한데 대해서,⁵⁾ 여기서는 서술의 전거를 밝히고 考說을 붙여서 엮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위의 네 조목이 삼국에서의 불교수용사라면, 나머지 두 조목은 수용 이후에 있어서의 국가의 불교정책에 관한 것이다. 그 중의 첫째인 「法王禁殺」(法王이 殺生을 금하다) 조는 국가에 의한 불교진흥정책으로서, 백제의 법왕이 살생을 금하고, 度僧을 하고, 王興寺를 창건하는 등의 이야기가 적혀 있다. 이외는 반대로 「寶藏奉老·普德移庵」(寶藏王이 道教를 받드니 普德이 암자를 옮기다) 조는 국가에 의한 불교억압정책을 적은 것이다. 즉 고구려 보장왕이 도교를 받들때 이를 간하던 보덕화상이 神力으로 암자를 날려서 백제 땅 孤大山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그 후 神人이 나타나서 고구려가 곧 망하리라는 예언을 했다는 기록도 적고 있다. 또 祐世僧統(大覺國師)이 이로 말미암아 東明王의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다고 한 詩의 구절도 인용하고 있다.

Ⅲ. 興法篇 편찬의 趣旨

興法篇은 흔히 불교수용사에 관한 서술로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한 불교수용사는 아니다. 그 내용 전체를 두고 본다면, 국가와 불교의 문제, 혹은 국가의 불교정책 문제가 이 흥법편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불교를 믿고 이를 진흥시키

4) 獸觸의 獸는 혹은 獸나 獸으로도 쓰는데, 지금 李丙燾의 견해에 따라서 獸로 적는다. (李丙燾, 「新羅佛敎의 浸透過程과 異次頓 殉敎 問題」,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658-659쪽 참조).

5) 『海東高僧傳』 「法空傳」에서 “按國史及古諸傳 商量而述”이라고 하였다.

면 국가가 융성하고 불교를 억압하면 국가가 멸망한다는 생각이 이 흥법편 전체를 흐르는 근본정신으로 되어 있다. 가령 다음과 같은 대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로(불교진흥으로) 말미암아 三韓을 아울러 한 나라가 되고 四海를 거두어 한 집이 되었다. 그러므로 덕스러운 이름을 天錕의 나무(달의 계수나무?)에 쓰고 신성한 자취는 은하수의 물에 비추니, 이 어찌 三聖의 威德이 이룬 바가 아니라(「원종흥법·위촉멸신」)

즉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은 결국 阿道·法興王·異次頓 세 성인의 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신라가 불교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한 三聖은 단지 불교의 신앙만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도 공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다.

반면에 불교를 탄압하면 국가가 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점을 大覺國師의 寶藏王에 대한 평을 인용하여 一然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즉 대각국사가 孤大山 景福寺에서 普德의 眞影에 절하고 지은 詩를 처음과 끝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서, 그 발문 거의 전부를 다음과 같이 옮겨놓았다.

고구려의 보장왕이 도교에 혹하여 불법을 믿지 않으므로 普德師가 房을 날려 남쪽으로 이 산에 이르렀다. 뒤에 神人이 고구려의 馬嶺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의 나라의 패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고 하였음은 모두 圖史와 같다. (「보장봉로·보덕이암」)

이 글은 대각국사의 것이지만,⁶⁾ 실은 일연의 생각이기도 하였음이 분명하다.

이같이 불교를 받들면 흥하고 불교를 누르면 망한다는 주장은 흥법편을 엮은 근본 뜻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興法이란 말에 대해서 一然은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흥법편의 한 조목으로 「原宗興法」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것은 “原宗(法興王)이 佛法을 일으키다” 혹은 “振興시키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興法은 넓은 의미의 불법 진흥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같이 흥법편은 국가와 불교의 문제를 신앙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묘사된 신앙의 세계가 異蹟으로 가득한 것임은 물론이다. 阿道가 왕녀의 병을 고쳤다는가, 異次頓이 순교할 때에 일어났다는 기적이라든가, 普德이 암자를 하늘로 날려서 고구려로부터 백제의 孤大山으로 옮겨다든가 하는 것들이 모두 그러하다. 그러므로 흥법편은 불교적인 神異事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다.

6) 『大覺國師文集』 17 詩(1) 「孤大山飛來方丈禮普德聖師影」 참조.

IV. 合理的 考證의 試圖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興法篇은 국가의 불교 진흥을 권장하는 뜻에서 편찬된 것이다. 불교의 수용으로부터 시작되는 흥법편은, 불교를 진흥시킴으로서 국가가 흥하고, 불교를 박해함으로써 국가가 망한다는 신념을 나타내 보이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 구체적 서술은 불교적인 神異事로 메워져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一然이 흥법편에서 보여준 고증이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점이 주목을 끈다. 예컨대 그는 阿道가 신라에 온 시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고증을 한 것과 같음이 그러하다.

나로서 試論한다면, 梁·唐의 두 僧傳 및 『삼국사기』에 모두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의 불교의 시작이 晉 말기의 大元年間(376-396)이라 하였은즉, 二道(順道·阿道) 法師가 소수림왕 甲戌(4년, 374)에 고구려에 온 것이 분명하다. 그런즉 이 전기가 잘못되지 않았다. 만일 毗盧王(479-500) 때에 처음 신라에 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阿道가 고구려에서 100여년 머물다가 온 것이다. 비록 大聖의 行止와 出沒이 보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다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신라에서 불교를 받들이 이 같이(法興王 때와 같이) 심하게 늦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만일 味鄒王 때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리어 고구려에 들어온 甲戌年(소수림왕 4년, 374) 보다 100여년이나 앞서게 된다. 이 때는 鷄林에 아직 문물과 예교가 없었고, 國號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무슨 겨를에 阿道가 와서 불교를 받들 것을 청하였겠는가. 또 고구려에도 이르지 않고 뛰어 넘어서 신라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설사 잠시 일어났다가 도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어찌 그 사이에 잠잠히 소문이 없었으며, 오히려 漸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겠는가. 하나는 어찌 너무 뒤지고, 하나는 어찌 너무 앞서는가. 저 東漸하는 대세를 생각하건대, 반드시 고구려·백제에서 시작하여 신라에서 끝났을 것인즉, 訥祗王과 小獸林王의 시대가 서로 잇대어 있으니, 阿道가 고구려를 떠나 신라에 이른 것은 마땅히 놀지왕 때였을 것이다.(「아도기라」)

만일 一然이 神異한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면, 어찌서 아도가 고구려에 와서 100여년을 묵은 뒤에 신라에 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려고 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는 인간세계에서의 일들을 합리적으로 보는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점은 一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서 『삼국유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중요한 일면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일연의 입장은, 위의 인용문에 곧 이어져 있는 다음과 같은 고증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또 王女の 병을 고친 것도 모두 阿道의 일이라고 전한 즉, 이른바 墨胡란 것은 진짜 이름이 아니요 지목해서 하는 말일 것이다. 마치 梁나라 사람이 達摩를 가리켜 碧眼胡라 하고, 晉에서 釋道安을 조롱하여 染道人이라고 한 따위이다. 阿道는 모험을 하면서 이름을 숨기고 실명을 말하지 않은 때문이다. 대개 나라 사람들이 그들이 들은 바에 따라 墨胡와 阿道의 두 이름을 나누어서 두 사람으로 만

들어 전했을 뿐이다. 하물며 阿道の 모습이 墨胡子와 비슷하다고 했은즉 이것으로도 그 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아도기라』)

현재까지도 목호자와 아도를 두 사람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의 고증이 현실적 논리에 충실한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神異를 존중한 一然이, 역사적인 구체적 사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합리적인 고증을 충실하게 시도하고 있다. 아마 그는 신앙과 역사를 구별하여 생각하지 않았던가 싶다. 그리고 一然에 있어서 이 점이 미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一然과 『삼국유사』를 이해하는 데 놓쳐서는 안될 일면이라고 생각된다.

V. 맺는말

『삼국유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시도하면서, 『삼국유사』를 구성한 각편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 결과로 얻어진 약간의 성과를 기회 있을 때마다 발표해 왔다.⁷⁾ 그러한 과정에서 興法篇에 대해서도 일단 초고를 작성하였으나, 워낙 양이 적은 것이어서 장차 예정된 三國遺事論에 끼워 넣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데 삼국유사론의 완성이 가까운 장래에 기약할 수 없는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대로 이것을 사장해 두는 것보다는 널리 발표하여 正을 받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낡은 원고를 손질하여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머리말에서도 언급해둔 바와 같이, 필자의 첫 학술논문은 興法篇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던 만큼 필자에게는 인연이 깊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史料로서였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하나의 著述로서 다루어본 것이다. 그리고 자칫 산만한 듯한 인상을 받는 구성 속에서 하나의 통일된 원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혹 잘못된 점이 있다면 敎示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7) 「三國遺事 王曆篇의 檢討」(『歷史學報』 107, 1985), 「三國遺事 紀異篇의 考察」(『新羅文化』 1, 1984), 「三國遺事 塔像篇의 意義」(『李丙巖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1987), 「新羅 佛敎에서의 孝觀念-三國遺事 孝善篇을 중심으로-」(『東亞研究』 2, 1983)